*영어어문교육 13*권 1호 2007년 봄

『레이디 수잔』의 집필 시기*

송 관 용

Song, Kwan-yong. (2006). Composition date of *Lady Susa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1), 133-15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to date the letters of *Lady Susan* and to find out which year's calender Jane Austen used to write the novel. The novel in forty-one letters with a brief narrated conclusion was transcribed as a fair copy by Jane Austen around 1805. However, no conclusive evidence for a precise date of composition exists, as only the fair copy survives. There is a watermark of 1805 on two leaves of the surviving manuscript of the transcribed copy. This indicates the period of the work's transcription but it does not indicate when it was first composed beyond suggesting that it was completed sometime before 1805. In the novel itself Jane Austen marked time sufficiently and frequently enough to allow us to follow it precisely. This strongly suggests that Jane Austen used a calender to write letters of the novel, even though dates and days were not given to the letters. To determine the most probable date of the calender is significant because it can be a clue to clarify when the novel was composed originally. Many words and phrases pointing to specific days or periods are mentioned in almost all the letters of the novel. From the words and phrases, a potential date to each letter can be successfully deduced and a potential possible calender for the novel can be made. In the end, all attempts to determine the authentic calender used for the novel fail.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is that discovering clues to a specific authentic date to each letter proves internally impossible. Composition date of the novel still remains as a challenge requiring further study.

[calender/composition date, 달력/집필 시기]

---

* 이 논문은 2004년 공주대학교 자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서론

흔히 위대한 예술가들은 천재적 즉흥성으로 세간의 주목받았지만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그와 달리 부단히 수정하고 편집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작가이다. 이 점에 대해 그녀의 오빠인 헨리 오스틴(Henry Austen)은 "점진적인 작업"(30)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끊임없이 고치고 다시 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1],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 언제 작품을 시작했고 완성했는지 명료하게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초기 완성 작품들은 그 집필 시작과 완성 시기를 대략 년도로 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보통 오스틴의 작품 활동과 관련하여 그녀의 생애를 시기별로 구분하게 되면 크게 3 기로 구분하거나 더 세분하여 4기로 구분하게 되는데[2] 그 기준은 그녀가 일정기간 거주했던 곳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3기로 구분하는 경우, 1기는 그녀가 유년, 소녀시절을 보내면서 초기의 창작활동을 즐겼던 시골마을 스티븐튼(Steventen)의 목사관 시절(1775-1801)이고 2기는 목사관을 떠나 도시 생활을 했던 바쓰(Bath)와 사우샘프튼(Southampton)의 시절(1801-1809), 3기는 다시 전원으로 돌아와 원숙한 창작활동에 전념했던 초튼(Chawton) 시절(1809-1817)로 나눌 수 있다. 4기로 구분하는 경우는 2기를 바쓰에 머물렀던 기간(1801-1805)과 사우샘프튼의 기간(1807-1809)으로 세분하는데 이 두 기간 동안은 작가가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의 생활과 경험은 3기의 소설들 속에서 생생하게 반영되어 그 가치를 발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오스틴의 대표적 작품들--『분별과 다감』(*Sense and Sensibility*),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노생거 사원』(*Northanger Abbey*),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 『에마』(*Emma*), 『설득』(*Persuasion*) --은 대부분 3기에 출판이 되었거나 사후에 출판되었다. 하지만 『분별과 다감』과 『오만과 편견』, 『노생거 사원』의 경우 초고 집필이후 오랜 시간 작가의 재 손길을 거치거나 책상서랍에 놓여져 있다가 3기에 이르러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분별과 다감』은 처음엔 전혀 다른 형태와 제목, 즉 편지체의 『엘리너와 머라이앤 』(*Elinor and Marianne*)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다가 1809년에서 181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현재의 소설 형태로 크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

---

1) 사우쌤(B.C. Southam)이나 리비스(Q.D. Leavis), 왈튼 리츠(A. Walton Liz), 로저 가드(Roger Gard) 등 많은 평자들이 작가의 집필과정을 끊임없는 수정과정으로 확인한 바 있다.

2) 왈튼 리츠는 작가의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면서 3기 구분이 전통적 방식이라고 설명한다(47-54). 그에 반해 페넬로페 휴스할렛(Penelope Hughes-Hallett)는 작가의 생애를 4기로 소개하고 있다(i -ix).

고 『오만과 편견』은 『첫인상』(*First Impression*)이라는 제목의 초고가 1809년에서 1810년 사이에 그리고 1811년과 1812년에 수정 작업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다. 『노생거 사원』은 1803년에 『수잔』(*Susan*)이란 제목으로 출판되는 듯 했지만 출판사 측에서 출판 보류하는 바람에 오스틴의 사후, 오빠인 헨리 오스틴에 의해 1818년 출판되었다. 이들 세 작품들은 초고가 탈고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판이 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의 초고가 정확히 언제 완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전해지는 오스틴의 편지나 그녀에 대한 후세의 전기로 판단해서 평자들은 『엘리너와 머라이앤』의 제목으로 처음에 탈고되었던 『분별과 다감』은 1796년이나 그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첫인상』의 『오만과 편견』은 1796년에서 1797년 사이에, 그리고 『노생거 사원』은 1798년에서 그 이듬해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

이처럼 오스틴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 초기에 쓰여진 작품들은 언제 쓰기 시작했고 언제 완성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들 작품들만큼이나 작품 집필 시작 시기나 완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또 다른 초기의 완성작품이 『레이디 수잔』(*Lady Susan*)이다. 『레이디 수잔』은 오스틴 생전에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녀의 사후 50여년이 지날 때까지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채프먼(R.W Chapman)에 따르면 오스틴은 이 작품을 제목을 정하지 않은 채 일부가 1805년의 무늬가 찍힌 종이책에 깨끗하게 적었고 그 1805년도의 필사본을 언니 카산드라(Cassandra Austen)가 간직하고 있다가 작가가 가장 가까이 했던 질녀 패니 나이트(Fanny Knight)에게 넘겨주었는데 패니 나이트는 오스틴 리(J.E. Austen-Leigh)가 제인 오스틴을 기리는 전기 『제인 오스틴 전기』(*Memoir of Jane Austen*)의 두 번째 판을 1871년에 출판하게 되었을 때 이 작품을 함께 묶어서 출판하도록 허용해 주었다(xv-xvi).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레이디 수잔』은 출판된 당시부터 오랫동안 오스틴의 작품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외면되거나 경시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레이디 수잔의 캐릭터 때문인데 그녀의 캐릭터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오스틴의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4].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성이 너무도 강하게 그려져 있어 당시 독서인들은 레이디 수잔을 오스틴의 여주인공들 중 한명으로 받

3)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의 집필시기에 관한 본론의 내용은 사우쌤의 견해로서 다른 많은 평자들도 대체로 사우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4) 루쓰 아프로버츠(Ruth apRoberts), 왈튼 리츠(A. Walton Litz), 사우쌤(B. C. Southam), 데이빗 세실(David Cecil) 등의 평자들이 그녀를 비도덕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마빈 머드릭은 그녀를 가부장 사회의 희생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1871년 퀸시(E. Quincey)는 이 소설에 대해 “오스틴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찮고 그 등장인물들이나 세부내용 면에서도 유쾌하지 못한”(85) 작품이라고 했고, 더글라스 부쉬(Douglas Bush)는 1975년에 “갈수록 자연스럽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괴물같은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라서 박진감을 느끼기가 어려운”(54) 작품으로 평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종종 오스틴이 소녀시절에 쓴 습작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혹은 『오만과 편견』의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베넷처럼 개성강한 멋진 여인상을 그려내는데 꼭 필요한 사전 스케치”(Honan, 101) 정도의 작품이라는 다소 미지근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오스틴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이 작품이 차츰 다른 대표작과 함께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작품이 작가의 습작품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진전이 있는 “좀 더 성숙한 작품”(Pinion, 64)이라거나 습작품 단계와 그 이후의 대표작 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전환기”(Tandon, 131)의 작품이라서 작가의 글쓰기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혹은 편지체로 쓴 것으로 알려진 『엘리너와 머라이앤』과 『첫인상』의 글쓰기 형태를 짐작케 하는 유일한 자료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레이디 수잔』이 작가의 글쓰기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작품이 정확히 언제 집필이 되었는지 그 시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평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우쌤은 남아 있는 원본들과 다른 작품들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이 작품이 1793년에서 1794년 사이에 쓰여 졌을 것으로 보았고(45-62) 그와 달리 오스틴의 작품에 대한 탁월한 평론으로 유명한 리비스는 1798년을 집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마빈 머드릭(Marvin Mudrick)은 그 시기를 1801년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레이디 수잔』이 작가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대표작들은 그 이후에 발표되어 그 솔직한 마음이 여러 형태로 억눌려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127-140). 사실 『레이디 수잔』의 집필 시기는 남아 있는 1805년의 무늬가 찍힌 필사본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평자들의 견해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까지도 『레이디 수잔』의 집필 시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정도의 견해가 있는 가운데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편지들의 작성 날짜가 이야기 속에서 언제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작품에 나오는 각각의 편지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날짜는 명시되고 있지 않다. 맨 처음의 편지만이 날짜 란에 “12월”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그 이후 40통의 편지들은 그 어디에도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세밀히 편지 읽기를 하여 그 속에서 언급되는 시간과 기간, 혹은 요일들의 앞뒤 관

계를 따져보면 매우 치밀하게도 달력상의 날짜가 이야기의 전개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은 필자로 하여금 제인 오스틴이 이 작품에서 사건을 전개할 때 어느 특정한 년도의 달력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시간을 배열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필자는 이런 생각에 착안하여 작품속의 편지들에 특정한 날짜를 부여해 주는 작업이 가능한 지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작품의 집필에 사용된 특정 년도의 달력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경우 이 작품의 집필시기에 대해서도 실제에 보다 근접한 유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본론

이 소설의 편지들에 날짜를 부여해 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 속 사건들의 전후관계를 말해주는 전체 줄거리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 바람둥이로 소문난 레이디 수잔은 남편이 7개월 전 병으로 사망한 뒤 딸 프레데리카(Frederica)를 데리고 맨웨어링 씨(Mr. Manwaring)의 랜포드(Lanford) 저택을 방문하여 체류한다. 그런데 그녀는 이 곳에서 바람둥이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랜포드 저택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그녀는 프레데리카와 함께 랜포드 저택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시동생인 버논 씨(Mr. Vernon) 가족이 사는 처칠 저택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곳으로 가는 도중 런던에 들려 프레데리카를 기숙학교에 맡기고 절친한 친구인 존슨 부인(Mrs. Johnson)을 잠시 만난다. 그 다음 날 수잔은 버논 씨의 한적한 은거지인 처칠 저택에 도착하여 장기 체류하게 된다. 버논 부인의 달갑지 않은 눈길 속에서 그녀는 지루한 첫 주를 보낸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버논 부인의 미혼 남동생인 드쿼시 씨의 방문으로 지루함은 즐거움으로 바뀐다.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결혼까지도 고려해 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기숙학교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녀는 할 수 없이 버논 씨를 보내 딸을 처칠로 데리고 온다. 얼마 후 마틴 제임스 경이 예고 없이 처칠 저택을 방문한다. 그는 부자이긴 하지만 어리석은 인물로 레이디 수잔의 매력에 빠져 그녀가 조종하는 대로 프레데리카와 결혼할 작정이다. 마틴 제임스 경의 출현으로 겁에 질린 프레데리카는 드쿼시 씨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하고 드쿼시 씨는 그 청을 받아들여 레이디 수잔과 크게 말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잠시 뒤

레이디 수잔의 교묘한 말솜씨에 속아 다시 그녀를 신뢰하게 된다. 처칠 저택의 한적한 은거생활에 질려 있던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와 비밀약혼과 결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딸을 처칠 저택에 남겨두고 대도시 런던으로 향한다. 그러나 런던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와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한다. 레이디 수잔의 소개로 존슨 부인의 집을 찾아 간 드쿼시 씨는 거기서 맨웨어링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입을 통해 드쿼시 씨는 과거 랜포드 저택에서의 레이디 수잔의 바람기 넘치는 행적과 맨웨어링 씨와의 밀회가 사실임을 알게 된다. 드쿼시 씨는 즉시 레이디 수잔에게 편지를 보내 비밀약혼 파기를 선언하고 런던을 떠난다. 비밀약혼의 파기 후 레이디 수잔은 프레데리카를 런던으로 데리고 오지만 얼마 후 독감전염을 핑계로 버논 부인이 그녀를 처칠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후 3주 뒤에 레이디 수잔은 마틴 제임스 경과의 결혼을 전격 선언한다. 한편 처칠 저택의 한 식구가 된 프레데리카는 약 1년 뒤 드쿼시 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위 줄거리에서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나는 부분까지는 편지체로 쓰여져 있고 그 뒷부분인 결말은 작가의 3인칭 관점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줄거리에서 필자의 관심은 편지체로 쓴 부분에 있다. 결말 부분은 3인칭 전지적 관점의 화자가 레이디 수잔을 비롯한 주요 등장 인물들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면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짧게 줄여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이 소설에서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가 파국에 이르기까지 사건전개는 주로 레이디 수잔과 존슨 부인 사이에 오고간 편지들 17통, 그리고 버논 부인과 친정어머니인 레이디 드쿼시 간의 왕래된 편지들 13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버논 부인이 동생인 드쿼시 씨에게 쓴 편지 1통, 레이디 수잔이 버논 씨에게 쓴 편지 1통, 드쿼시 씨가 버논 부인에게 쓴 편지 1통, 드쿼시 씨의 부친이 드쿼시 씨에게 쓴 편지 1통, 이에 대한 답장으로 드쿼시 씨가 부친에게 쓴 편지 1통, 프레데리카가 드쿼시 씨에게 쓴 편지 1통, 레이디 수잔이 드쿼시 씨에게 쓴 편지 3통, 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에게 쓴 편지 2통, 이렇게 11통의 편지가 쓰여져 총 41 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41 통의 편지에는 모두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 혹은 한 두 주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 통의 편지에서 한꺼번에 언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Tandon, 131) 사건 전개가 몹시 빠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전하는 사건들의 앞뒤 관계를 헤아리며 차분히 이야기를 쫓아가 보면 작가는 일정하게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편지에서 결정적으로 언급되는 요일들이나 기간의 전후관계를 따져보

면 작가가 특정한 해의 달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하기에는 그 관계가 지나치게 잘 들어맞는다.

소설의 편지 속에서 언급되는 특정한 기간이나 시간 및 요일은 편지들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유추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그런 단서들을 이용하여 편지 속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날짜 배열을 시도해 볼 수 있다.

1. 12월 17일 -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 7일 이내)

편지 1(레이디 수잔이 버논 씨에게 보냄): 편지 1에서 레이디 수잔은 시동생인 버논 씨에게 "며칠 이내에"(1) 버논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처칠 저택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날짜 란에는 "12월"(1)이라고 적혀 있다.

편지 2(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레이디 수잔은 자신이 랜포드 저택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실제 이유를 말하면서 시동생 부부가 사는 처칠 저택을 곧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녀는 "이번 주 내에"(6) 런던에서 존슨 부인을 만나고 그 다음 바로 처칠 저택으로 향할 예정임을 밝힌다.

편지 3(버논 부인이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버논 부인은 파크랜즈(Parklands)에 사는 친정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한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레이디 수잔이 "거의 곧"(8) 자기 집인 처칠 저택에 당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편지 4(드쿼시 씨가 버논 부인에게 보냄): 편지 3을 통해 레이디 수잔의 소식을 들은 드쿼시 씨는 소문으로 영국에서 가장 세련된 바람둥이 여자인 레이디 수잔을 보기를 고대하던 차에 그녀가 처칠 저택에 곧 오게 된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기꺼이 누나의 초대에 응해 "바로"(14) 처칠 저택을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편지 1 - 4 해설: 이 편지들은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 도착하기 전에 쓰여 졌다. 편지 1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디 수잔은 편지 1을 쓴 날로부터 며칠이내 처칠 저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편지 2에서처럼 처칠 저택 방문 전에 그녀는 런던의 친구를 만날 것인데 그 날은 편지 2를 쓴 날과 같은 주 중에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편지 5에서 확인되듯이 런던에서 존슨 부인을 만난 그 다음 날 레이디 수잔은 처칠 저택에 도착한다. 편지 3에서 보듯이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 방문이 곧 예정되어 있어 버논 부인은 파크랜즈 저택의 크리스마스 가족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편지 4는 레이디 수잔이 처칠에 도착하기 바로 전 드쿼시 씨가 버논 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4통의 편지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 편지들이 "12월" 그것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즈음하여 쓰여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

에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버논 부인이 12월 25일에 있을 친정의 크리스마스 가족모임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그 때에 즈음하여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 1에서 언급된 “며칠 이내”만으로는 편지 1이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편지 2는 레이디 수잔이 “이번 주 내에” 런던에 사는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 날 처칠 저택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 주 내에” 런던 도착과 그 다음 날 처칠 저택 방문의 의미는 편지 2가 최소한 처칠 저택 방문 전 7일 이내에 쓰여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인 오스틴은 4 통의 편지들의 날짜를 모두 적어도 크리스마스 전 8일 이내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디 수잔의 처칠저택 도착 날짜는 이 4통의 편지에서 제시된 단서만 가지고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이 4통의 편지들이 크리스마스 직전 8일 이내에 쓰여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버논 부인이 파크랜즈의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을 취소한 것은 그 전에 레이디 수잔의 방문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칠 저택 도착 날짜는 12월 25일 전 며칠 이내가 가능하다. 그런데 편지 2에서 언급된 “이번 주 내에”를 또한 감안해 볼 때 12월 25일 전 7일 이내의 어느 날이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 도착 날짜가 될 것이다. 따라서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중 어느 하루를 처칠 저택 도착 날짜로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는 확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이 모이는 풍습을 고려해 편의적으로 레이디 수잔의 도착 날짜를 12월 24일로 정해 본다. 1부터 편지 4까지의 날짜는 12월 18일과 12월 23일 사이의 날짜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12월 24일 – 12월 30일 (레이디 수잔의 처칠 도착일부터 그 후 1 주일 이내)

편지 5(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는 레이디 수잔이 처칠에 도착해서 바로 친구에게 쓴 편지이다. 레이디 수잔은 처칠 저택 도착 “전날 저녁”(14-15) 존슨 씨의 눈을 피해 존슨 부인을 런던에서 만났으며 그 다음 날 런던을 출발하여 처칠 저택에 도착하였다. 처칠 저택에 도착하여 버논 부인과 첫인사를 나눈 뒤 친구인 존슨 부인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편지 6(버논 부인이 드쿼시 씨에게 보냄): 편지 5에서 레이디 수잔이 말했듯이 버논 부인은 레이디 수잔을 맞이한 첫 날부터 사실상 그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버논 부인은 레이디 수잔이 외적으로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내적으로는 기만과 허영이 가득한 여성임이 틀림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편지 5 - 6 해설: 레이디 수잔이 12월 24일에 처칠에 도착한 것으로 보면 그 날 그녀는 친구인 존슨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버논 부인은 수잔 부인의 도착 첫 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 파크랜즈에 사는 남동생 드쿼시 씨에게 편지를 써서 수잔 부인의 첫인상을 알려준다. 따라서 드쿼시 씨는 처칠 저택에 오기 전 누나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레이디 수잔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칠에 오게 된다. 그는 레이디 수잔이 처칠에 도착한 후 1주일이 지난 다음 날 처칠 저택에 모습을 나타낸다.

3. 12월 31일 - 이듬해 1월 13일 (드쿼시 씨의 처칠 도착일부터 그 후 2주간)

편지 7(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의 후반부에서 레이디 수잔은 처칠 저택에서 “첫 주 동안은 정말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26)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버논 부인의 남동생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편지 8(버논 부인이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버논 부인은 남동생 드쿼시 씨가 자기의 처음 예상과 달리 레이디 수잔에게 점점 반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약간은 걱정스러워한다. 편지에 따르면 레이디 수잔은 14일의 기간 동안 드쿼시 씨의 선입견을 바꿔 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편지 9(존슨 부인이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존슨 부인은 레이디 수잔에게 부유한 가문의 유산상속권자인 드쿼시 씨를 남편감으로 생각해 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또한 마틴 제임스 경이 “지난 주 며칠동안”(34) 런던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했음을 전하고 있다.

편지 7 - 9 해설: 편지 7은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 온 지 2주 째에 접어들면서 쓴 편지이고 그 뒤 레이디 수잔이 처칠에 온지 3주가 끝나는 시점인 1월 13일 경에 버논 부인이 편지 8을 썼다.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이 편지 7을 쓰기 하루나 이틀 전인 12월 31일에 처칠 저택을 방문한 것인데 드쿼시 씨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레이디 수잔은 정숙한 요조숙녀의 태도로 드쿼시 씨를 상대함으로써 점차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버논 부인은 드쿼시 씨가 정도 이상으로 레이디 수잔에 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 편지 9는 편지 7에 대한 답신이다. 첫 대목에서 드쿼시 씨가 처칠에 도착한 것을 축하한다고 답신한 것으로 볼 때 이런 축하 인사 겸 답신을 아주 늦게 보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편지 7이 쓰여 진 주(1월 첫 주)의 다음 주에 편지 9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편지 9는 편지 8

이 쓰여 진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편지 9에서 존슨 부인이 언급한 마틴 제임스 경의 런던 방문은 12월 31일에서 이듬해 1월 6일 사이 즉 드쿼시 씨가 처칠 저택을 방문한 주와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4. 1월 14일 - 1월 20

편지 10(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자신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드쿼시 씨가 자신에게 "반쯤은 사랑에 빠진"(37) 상태라고 하면서 자신과 드쿼시 씨와 관계를 "일종의 신뢰관계"(37) 혹은 "일종의 정신적 우정관계"(37)로 설명하고 있다.

편지 11(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 씨에게 보냄): 버논 부인은 친정 어머니에게 남동생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레이디 수잔의 매력에 빠져들어 불안하다고 말하며 그를 레이디 수잔에게서 떼어 놓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버논 부인의 시선으로도 레이디 수잔과 자기 남동생의 관계는 "가장 특별한 관계"(39)로 비춰지고 있다.

편지 10 - 11 해설: 편지 10은 존슨 부인의 편지 9에 대한 답장이다. 이 답장에서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와의 관계를 "일종의 신뢰관계" 혹은 "일종의 정신적 우정관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설명은 그 다음 편지 11에서 버논 부인이 언급하는 "가장 특별한 관계"와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 간의 관계 변화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둘 간의 관계를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편지 10과 편지 11은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쓰여진 편지들이라고 주장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둘 간의 그런 관계는 그전에 쓰여진 편지들(편지 7, 8, 9)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편지 8에서 보듯 버논 부인이 바라본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의 관계는 적어도 "특별한 관계"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편지 10과 11은 편지 7, 8, 9가 쓰여진 주의 그 다음 주에 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1월 21일 - 1월 27일

편지 12(레지날드 드쿼시 경이 아들 드쿼시 씨에게 보냄): 부인 앞으로 온 딸의 편지(편지 11)를 읽고 걱정에 빠진 드쿼시 경은 아들인 드쿼시 씨에게 설득과 경고가 담긴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드쿼시 경은 레이디 수잔이 랜포드 저택에서 일으킨 분란을 언급하며 왜 "한달 전"(46)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분란의 진

실성을 이제 와서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한다.

편지 13(레이디 드쿼시가 버논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는 편지 11에 대한 답신이다. 이 편지에서 레이디 드쿼시는 딸의 요청에 대해 자기 대신 남편인 레지날드 드쿼시 경이 아들에게 편지(편지 12)를 쓰게 된 경위를 적고 있고 그가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아들인 드쿼시 씨가 바로 "오늘 아침"(49)에 답장(편지 14)을 보내왔는데 그 답장을 동봉했으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편지 14((드쿼시 씨가 아버지 레지날드 드쿼시 경에게 보냄): 편지 13에서 레이디 드쿼시 가 딸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한 드쿼시 씨의 답장이다. 이 답장에서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처럼 나이 많은 미망인과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녀를 변호한다.

편지 12-14 해설: 편지 12는 "한 달 전"의 드쿼시 씨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 전"이라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타당할 것인가? 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녀에 관해 쓴 편지 4의 날짜가 그 "한 달 전" 시점으로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달 전쯤에 드쿼시 씨의 생각을 보여주는 편지는 편지 4가 유일하며 그 편지에서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에 대한 추문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치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편지 4가 써진 12월 23일 경의 날짜는 편지 11의 날짜를 참작해 볼 때 "한 달 전"의 시점으로도 충분히 타당하다.

6. 1월 28일 - 2월 3일

편지 15(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편지 13에 대한 답신이다. 이 편지를 쓰는 날인 "오늘 아침"(58)에 런던의 기숙학교로부터 프레데리카가 학교에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연락이 온다. 버논 씨가 사태해결을 위해 즉시 런던을 향해 떠나고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가라 앉힌다.

편지 16(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레이디 수잔도 "오늘 아침"(61) 런던의 기숙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프레데리카의 도망시도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편지 17(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런던에 갔던 버논 씨가 "목요일 밤"(65)에 프레데리카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 날 오후에 버논 씨는 레이디

수잔에게 미리 우편으로 연락을 보내 기숙학교에서 프레데리카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니 같이 데리고 오겠다고 통보한다[5]. 프레데리카의 도착 후 레이디 수잔의 요청에 따라 “요즘 며칠 사이에”(68) 피아노가 레이디 수잔의 분장실로 옮겨지고 프레데리카는 그 분장실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버논 부인은 프레데리카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며 레이디 수잔이 말한 것과 달리 못된 성격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편지 15 -17 해설: 편지 15는 편지 13에 대한 답장형태로 쓰여 졌다. 그런데 편지 15에서 버논 부인은 새로운 사건을 화제로 다루고 있다. 런던으로부터의 돌연한 소식과 그에 뒤이은 사건들은 시간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편지 12, 13, 14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화제의 초점은 드쿼시 씨와 레이디 수잔의 결혼가능성과 그에 대한 염려였다. 그런데 편지 15, 16, 17에서는 돌연 프레데리카가 런던의 기숙학교에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처칠 저택에 오게 된 일을 다루고 있다. 프레데리카가 기숙학교에서 도망을 시도한 날과 버논 씨가 런던에 가서 그녀를 데려온 날 그리고 버논 부인이 그녀를 관찰하며 느낀 며칠간은 편지 12, 13, 14에서 버논 부인과 레이디 드쿼시 그리고 드쿼시 경이 드쿼시 씨와 레이디 수잔의 관계를 걱정하며 보낸 기간과는 다른 시간대의 것임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편지 15, 16, 17은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 중에 쓴 편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편지 중 편지 15와 16은 같은 날 쓴 편지들이고 그 날짜는 버논 씨가 런던의 기숙학교에서 온 편지를 아침에 받고 떠나 당일 런던에 도착했다고 볼 때, 그리고 기숙학교로 가서 프레데리카를 만나 그녀를 목요일 밤에 데리고 온 것으로 볼 때, 그 전 날인 수요일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17의 날짜는 프레데리카가 오고 나서 “요즘 며칠 사이에” 피아노가 옮겨진 점을 감안할 때 토요일이 알맞은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편지 15와 16은 1월 30일 경으로, 편지 17은 2월 3일 경으로 정할 수 있다.

7. 2월 4일 - 2월 10일

편지 18(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편지 17에 이어 버논 부인은 계속해서 프레데리카를 화제로 삼고 있다. 이 편지에서 버논 부인은 프레데리카가 드쿼시 씨에 대해 점점 관심과 찬탄의 눈빛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버논 부인은

5) 편지 17의 내용상 버논 씨가 같은 목요일 오후에 런던에서 먼저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그 날 밤에 프레데리카를 데리고 처칠 저택에 도착했다는 사실에서 작가는 처칠 저택에서 런던까지의 거리를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처칠 저택이외에도 랜포드 저택 그리고 파크랜즈 저택, 런던 등 서로간의 물리적 거리도 등장인물들이 하루이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프레데리카가 레이디 수잔의 그늘아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양을 제대로 쌓지 못했을 뿐이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하지도 않으며 독서를 매우 좋아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좋고 타고난 재능도 있다고 본다. 레이디 수잔이 처음에는 프레데리카가 버논 부인과 자주 말할 기회를 갖는 것을 경계하여 그녀의 시간을 통제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버논 부인은 프레데리카와 좋은 친구지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편지 18 해설: 이 편지는 편지 17과 마찬가지로 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 버논 부인은 이 편지를 쓰기 전 레이디 드쿼시의 편지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18에서 언급되는 프레데리카에 대한 관찰평은 편지 17의 프레데리카에 대한 관찰평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세밀하고 확정적이다. 그런 세밀함과 단정적 표현은 그만큼 버논 부인이 프레데리카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을 뜻한다. 또한 편지의 문장 중에 “그 아이 엄마[레이디 수잔]가 이제는 전과 달리 그 아이[프레데리카]를 그냥 내버려두네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그 아이가 수줍음을 그만 탈 수 있도록 애써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버논 부인과 프레데리카]는 아주 가까운 친구지간이 되었죠.”(73) 와 같은 문장도 그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편지 18은 편지 17에 바로 뒤이어 쓴 것이 아니라 레이디 드쿼시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편지 18은 편지 17과 같은 주 중에 썼다기 보다는 그 다음 주 중에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2월 11일 - 2월 17일: 2월 14일(목요일)

편지 19(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레이디 수잔은 “지난 14일 전 목요일”(75) 프레데리카가 숙부인 버논 씨와 함께 처칠 저택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 때 레이디 수잔은 딸을 따로 불러내 도망친 이유를 물었고 그 이유는 그녀가 예상한 대로 마틴 제임스 경과의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편지 19 해설: 이 편지는 프레데리카가 처칠 저택에 도착한 날로부터 2 주일이 지난 시점의 목요일에 쓴 것이다. 이 때는 편지 18에서 버논 부인이 관찰했던 프레데리카의 드쿼시 씨에 대한 찬사의 눈길이 점점 깊어져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데리카가 처칠 저택에 도착한 날이 1월 마지막 주의 31일이므로 이 편지는 2월 14일 목요일에 쓰여 졌다.

9. 2월 18일 - 2월 24일: 2월 20(수요일)

편지 20(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예기치 않게 “어제”(79) 제임스 마틴 경이 방문했음을 알린다. 프레데리카는 마틴 경의 돌연한 방문에 당황함을 금치 못한다. 한편 레이디 수잔도 그의 출현을 속으로는 몹시 못마땅해 한다. 왜냐하면 그의 출현은 프레데리카를 강제 결혼시키려는 자신의 의도가 버논 부부와 드쿼시 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편지 21(프레데리카가 드쿼시 씨에게 보냄): 마틴 경의 출현으로 강제결혼의 공포에 사로잡힌 프레데리카는 최후의 수단으로 드쿼시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다. 꼭 엄마를 설득해서 강제결혼 시키려는 계획을 포기시켜 달라고 적고 있다.

편지 22(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오늘 아침”(93) 레이디 수잔의 방으로 찾아온 드쿼시 씨는 왜 프레데리카를 마틴 경과 결혼시키려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그것의 비타당성과 무정함을 따진다. 드쿼시 씨의 돌연한 반발에 당황한 레이디 수잔은 그 반발이 딸의 폭로 때문임을 알고 분노한다.

편지 23(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버논 부인은 드쿼시 씨가 “반 시간 전”(99)에 응접실로 찾아와 “오늘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99)고 하자 레이디 수잔과의 관계가 끝장난 것으로 판단하여 기뻐한다.

편지 24(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편지 23에 뒤이은 이 편지에서 버논 부인은 유감스럽게도 드쿼시 씨가 마음을 바꾸어 처칠 저택에 계속 체류하기로 한 상황을 레이디 드쿼시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기 두 시간 전 버논 부인은 드쿼시 씨가 곧 처칠 저택을 떠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반 시간이 지난 뒤 버논 부인은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 씨에게 편지 23을 써서 보냈다. 그러나 잠시 뒤 버논 부인은 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가 계획을 바꾸어 다시 처칠 저택에 계속 머물 것임을 알게 된다.

편지 20 - 24 해설: 편지 20, 21, 22, 23, 24는 모두 수요일 하루 동안에 쓴 편지들이다. 그런데 편지의 순서와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로 볼 때 편지 19가 목요일에 쓴 것이므로 편지 19가 쓰여진 주의 다음 주 수요일이 이들 편지들의 날짜가 된다. 편지 2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임스 마틴 경은 “화요일”(90)에 처칠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 버논 부인은 편지 20에서 “어제”(79) 제임스 마틴 경이 돌연 처칠 저택에 나타나 생긴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편지 21에는 특정한 요일이나 날짜를 알려주는 단서는 없다. 하지만 편지 24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날 수요일 아침 새벽에 프레데리카가 드쿼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편지 21을 썼다. 드쿼시 씨는 수요일 아침식사 후 프레데리카한테서 편지 21을 건네 받고 바로 레이디 수잔

의 분장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다. 그 직후 그는 응접실에 있는 버논 부인을 찾아가 레이디 수잔과의 결별을 시사하며 즉시 처칠 저택을 떠나겠다고 말한다. 드쿼시 씨의 선언이 그지없이 반가운 버논 부인은 반 시간 뒤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 씨에게 편지 23을 써서 축하의 말을 전하지만 그 뒤 한 시간 반 사이에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의 뛰어난 언변에 넘어가 다시 일정을 번복한다. 편지 23을 보낸 지 2시간 만에 버논 부인은 드쿼시 씨가 다시 처칠에 더 체류하기로 마음을 바꾼 사실을 편지 24에서 적고 있다.

10. 3월 3일

편지 25(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일전에”(119) 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편지(편지 22)를 보냈을때 그녀는 프레데리카에 대한 결혼계획이 폭로되고 드쿼시 씨가 심각하게 반발한 점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 25에서도 여전히 드쿼시 씨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녀는 존슨 부인에게 말하기를 “처칠에서 10 주간 고행”(125)을 한 대가로 런던에서 함께 사교와 유흥을 즐겨볼 계획이라고 말한다. 레이디 수잔은 이 편지 말미에서 프레데리카와 제임스 마틴 경과의 결혼 계획 그리고 자신과 드쿼시 씨 간의 관계에 대해 존슨 부인에게 조언을 부탁하며 런던의 숙소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도 문의한다.

편지 25 해설: 이 편지에서 레이디 수잔이 언급한 10 주간의 고행은 그녀가 처칠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히 편지 25를 쓴 날까지의 머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런던으로 출발하는 날까지 머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기간을 전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레이디 수잔이 편지 25를 쓰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존슨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그녀가 특정한 어느 날 런던으로 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미리 세워서 말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런던으로 나가보겠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따라서 레이디 수잔이 체류기간을 정확히 10주간이라고 말한 것은 런던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말했다기 보다는 이 편지 25를 쓴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말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날까지의 10주간의 기간을 그녀는 한적한 은거지 저택에서 고행을 계속해 온 셈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만간 런던으로 나가 유흥을 즐기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편지 25의 날짜는 3월 3일 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녀가 실제 런던으로 떠나는 날은 그 후 며칠이내가 될 것이다.

11. 3월 3일 - 3월 9일(3월 둘째 주)

편지 26:(존슨 부인이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편지 25에 대한 답신으로 존슨 부인은 레이디 수잔이 혼자 런던에 와서 드쿼시 씨와 결혼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조언하면서 빨리 서두르기를 권한다. 존슨 부인은 그렇게 서둘러 런던으로 오라고 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존슨 씨가 "다음 주 화요일"(129)에 건강을 위해 런던을 떠나 바쓰로 여행을 갈 예정이니 그가 런던에 부재할 때 함께 만나 재회의 즐거움을 나누자는 것이다. 존슨 부인은 레이디 수잔의 문의에 따라 레이디 수잔이 런던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어퍼 세이머(Upper Seymour) 거리에서 알아보았고 예약해 줄 수 있음을 알린다.

편지 27(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버논 부인은 마침내 곧 드쿼시 씨와 레이디 수잔이 서로 헤어져 처칠 저택을 떠나게 될 것임을 어머니 레이디 드쿼시에게 알린다. 드쿼시 씨는 본가가 있는 파크랜즈로, 레이디 수잔은 친구가 있는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버논 부인은 그들의 헤어짐이 잠시의 이별일 뿐, 그들이 런던에서 곧 재회하여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편지 28(존슨 부인이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존슨 부인은 남편 존슨 씨가 안타깝게도 바쓰로의 여행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레이디 수잔에게 알린다. 존슨 씨는 레이디 수잔과 존슨 부인의 만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갑자기 통풍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여행을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존슨 부인은 예정대로 레이디 수잔을 위해 숙소를 잡아두었다고 말한다.

편지 26 - 28 해설: 편지 26, 27, 28은 편지 25와 시간상 크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편지 26은 편지 25에 대한 답장인데 답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편지 25를 받고 곧 바로 보낸 편지라고 판단된다. 편지 27과 28은 편지 26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 - 조만간 레이디 수잔이 런던으로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 -을 또한 주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편지 26을 좀 더 살펴보자. 이 편지에서 존슨 부인은 "다음 주 화요일"에 남편이 바쓰로 떠날 예정이니 그 때 쯤에 만나기를 강력히 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권고에 따라 레이디 수잔은 편지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찬성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로 보아 이 편지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 전 즉 편지 26의 날짜가 속한 이번 주에 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28에서 존슨 부인은 남편이 바쓰로의 여행을 취소했음을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남편의 여행 취소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 다가오기 전에 레이디 수잔의 런던행 출발 일정에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편지 28은 편지 26,

27과 같은 주에 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편지들은 또한 편지 25와 같은 주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 3월 9일 혹은 3월 10일

편지 29(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레이디 수잔은 이 편지를 쓰기 "전날 저녁 5시"(136)에 런던의 어퍼 세이머 거리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맨웨어링 씨의 방문을 맞게 되는데 그를 만난 기쁨에 그녀는 드쿼시 씨와의 재회와 결혼을 잠시 뒤로 미루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드쿼시 씨에게 자신이 남편을 여읜 지 이제 "가까스로 10개월"(138)이 돼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재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핑계를 댈 참이다.

편지 30(레이디 수잔이 드쿼시 씨에게 보냄): 편지 29에서 보듯 맨웨어링 씨와의 밀회를 즐기기 위해 그녀는 드쿼시 씨에게 편지를 보내 만남을 연기 요청한다. 그녀는 자신들이 감정에만 의존해 비밀리에 너무 "성급히 약혼"(139)을 맺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잠시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핑계를 댄다.

편지 29, 30 해설: 편지 29와 30의 날짜에 대한 단서는 편지 29의 내용 중 레이디 수잔이 자신이 남편을 여읜 지 "가까스로 10개월"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레이디 수잔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기는 편지 2에서 확인이 된다. 편지 2에서 레이디 수잔은 맨웨어링 부부의 랜포드 저택을 찾아가기 "4 개월"(4) 전에 남편이 사망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랜포드 저택에 찾아가서 머문 지 "3개월"(3)이 되는 시점에 그녀는 편지 2를 썼다. 편지 2를 쓴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 8일 이내인 12월 17일과 23일 사이의 어느 날로 볼 때 레이디 수잔이 남편을 여읜 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은 이듬해 3월 17일과 23일 사이의 어느 날이 된다. 그런데 편지 29의 "가까스로 10개월"이라는 어구는 문맥 상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월 수와 날 수를 함께 따져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개월 수 만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3월 18일과 3월 23일 사이가 "가까스로 10개월"이 되는 시점이고 후자의 경우에 "가까스로 10개월"은 3월 초를 말한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경우가 편지들의 날짜 확정에 있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전자의 경우 편지 29의 날짜는 편지 28의 날짜와 시간상 많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편지 28의 날짜와 관련하여 시간상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편지 28에서 존슨 부인은 런던의 어퍼 세이머 거리에 숙소를 정했다고 말함으로써 레이디 수잔이 곧 런던으로 출발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잔의 런던 도착은 편지 28 이후 하루나 이틀 뒤에 벌어질 일이다. 이런 점에서 편지 29와 편지 30은 3월 9일 경이나 그 다음 주의 3월 10일 경에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다.

13. 3월 11일(월요일)

편지 31(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드쿼시 씨의 급작스런 방문은 레이디 수잔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늘 저녁 맨웨어링 씨와 밀회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어 30분 뒤면 그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해결책으로 드쿼시 씨를 친구인 존슨 부인에게 보낸다. 레이디 수잔의 요청으로 드쿼시 씨는 존슨 부인을 찾아가는데 그가 들고 가는 소개장이 바로 편지 31이다.

편지 32(존슨 부인이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편지 31에 대한 신속한 답신으로 존슨 부인은 이 편지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드쿼시 씨가 자신을 찾아 온 시점에 존슨 부인 자신은 외출 상태였고 불행히도 때마침 맨웨어링 부인이 존슨 씨를 찾아와 남편의 외도를 하소연하고 있었다. 결국 드쿼시 씨는 맨웨어링 부인을 만나게 되어 그동안 레이디 수잔이 맨웨어링 씨와 정인관계로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편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존슨 부인은 레이디 수잔에게 “지금이라도 맨웨어링 씨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그를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147)고 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다.

편지 33(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레이디 수잔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레이디 수잔은 “방금 맨웨어링 씨가 떠났다”(148)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존슨 부인을 안심시킨다. 그녀는 비록 오늘은 드쿼시 씨가 화가 나 있겠지만 “내일 저녁식사”(148) 때쯤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있을 거라고 말한다.

편지 31 – 33 해설: 편지 26에서 언급된 “다음 화요일”(129)이 3월 둘째 주 화요일이라고 할 때 레이디 수잔이 런던에 도착한 날짜는 그 둘 째 주의 토요일이나 그 다음 날인 3월 셋째 주 일요일이다.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녀는 드쿼시 씨에게 만남을 미루자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곧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드쿼시 씨가 런던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드쿼시 씨가 런던에서 레이디 수잔을 방문한 날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은 이 소설의 마지막 번 째 편지인 편지 41가 말해주고 있다. 버논 부인이 쓴 편지 41에 따르면 레이디 수잔은 버논 부인이 남동생인 드쿼시 씨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가 친절하게도 월요일에 자신을 방문해 주었다”(163)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편지 31이 작성된 날은 3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 그 날 드쿼시

씨는 존슨 씨의 저택을 방문하여 레이디 수잔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저녁에 드쿼시 씨가 존슨 씨의 서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존슨 부인은 급히 레이디 수잔에게 편지 32를 써서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맨웨어링 씨를 빨리 내보낼 것을 권했고 그에 대한 즉답으로 레이디 수잔이 편지 33을 써서 "방금"(148) 그를 보냈으며 "내일"(148)인 3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식사 쯤에 드쿼시 씨의 분노가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4. 3월 12일(3월 세째 주 화요일)

편지 34(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그는 "어제"(148) 존슨 씨의 집에서 그녀와 맨웨어링 씨의 관계에 대해 맨웨어링 부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편지 35(레이디 수잔이 드쿼시 씨에게 보냄):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의 결별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직접 만나 해명하겠으니 곧 방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편지 36(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드쿼시 씨는 레이디 수잔의 말솜씨에 속아 과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녀의 부정한 짓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부정한 짓들이 사실임을 믿는다고 말한다. 드쿼시 씨는 자신의 통찰력이 마침내 원상회복되어 더 이상 그녀의 말솜씨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영원히 그녀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말한다.

편지 37(레이디 수잔이 드쿼시 씨에게 보냄): 레이디 수잔이 마침내 드쿼시 씨의 결별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녀는 드쿼시 씨와 "14일 전"(154)에 맺었던 비밀 약혼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

편지 38(존슨 부인이 레이디 수잔에게 보냄): 이 편지에서 존슨 부인은 드쿼시 씨가 존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가 "오늘"(155) 런던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레이디 수잔의 결별에 유감을 표시한다. 존슨 부인은 덧붙여 말하기를 남편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제 레이디 수잔과의 편지 교환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한다.

편지 39(레이디 수잔이 존슨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 서두에서 레이디 수잔은 존슨 부인과의 작별인사를 아쉬워하며 영원한 우정을 확인한다. 그녀는 자신이 드쿼시 씨와 결혼할 수 없게 된 만큼 프레데리카도 그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내일"(158) 그녀를 처칠 저택에서 런던으로 데려와 제임스 마틴 경과 결혼시켜야겠다고 말함으로써 드쿼시 씨를 유혹해 결혼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편지 34 – 39 해설: 편지 34에서 39까지의 편지들은 모두 화요일에 쓰여 졌다. 드쿼시 씨가 레이디 수잔을 방문한 날이 “어제”(148)인 월요일이기 때문에 편지 34는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쓰여 졌고 편지 35와 36, 37은 같은 화요일 런던 시내에서 오고 간 편지들이다. 편지 38에서 언급된 “오늘”(155)은 드쿼시 씨가 런던을 떠나기로 한 날인데 이 날이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인 이유는 편지 39 때문이다. 편지 38에 대한 답신으로 쓰여진 편지 39에서 레이디 수잔은 “내일”(158) 처칠 저택에 프레데리카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내일”은 바로 편지 41에서 언급된 “수요일”(162)이다. 따라서 편지 38은 편지 39가 쓰여진 화요일과 같은 날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3월 13일(3월 세째 주 수요일)

편지 40(레이디 드쿼시가 버논 부인에게 보냄): 이 편지를 쓰는 “오늘 아침”(160) 한시간 전에 드쿼시 씨가 런던에서 파크랜즈로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레이디 드쿼시가 딸인 버논 부인에게 전하고 있다. 아들이 레이디 수잔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도 기뻐 급히 딸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편지 40 해설: 드쿼시 씨가 파크랜즈에 돌아온 “오늘”은 편지 41에서 언급된 수요일이다.

16. 3월 14일(3월 세째 주 목요일)

편지 41(버논 부인이 레이디 드쿼시에게 보냄): 어머니가 보낸 소식을 믿기지 않아 하며 버논 부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한다. 그녀는 드쿼시 씨가 런던을 떠나 파크랜즈에 도착한 “수요일”(162)에 레이디 수잔은 뜻밖에도 처칠저택을 찾아와 프레데리카를 데려간 사실을 언급한다. 그 때 레이디 수잔은 드쿼시 씨가 “월요일”에 자신을 방문하고 곧 돌아갔다고 말하지만 버논 부인은 그들의 결별을 전혀 눈치채지 못 했다. 버논 부인은 어머니의 요청대로 기꺼이 가족과 함께 “다음 주 목요일”(163) 파크랜즈를 방문하겠다고 답한다.

편지 41 해설: 버논 부인이 쓴 이 편지는 편지 40의 “수요일” 이후에 쓴 편지이다. 레이디 수잔이 “수요일”에 처칠 저택에 찾아왔는데 버논 부인은 이 사실을 과거의 일로 언급하며 그 수요일을 “그[드쿼시 씨]가 파크랜즈에 온 바로 그 날”(162)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적어도 편지 41을 쓴 날은 수요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편지 중반부에서 버논 부인은 “다음 주 목요일”(163)(3월 넷 째 주 목요일)에 파크랜즈를 방문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가 수요일 이후의 목요일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편지 41은 3월 세 째 주 목요일에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에서 작가는 편지 41을 마지막으로 편지체의 이야기를 접는다. 대신에 그녀는 “결말”(conclusion)이라는 타이틀로 소설의 마지막을 3인칭 전지적 작가의 관점으로 마무리한다. 결말에서 작가는 자신의 특유한 어법을 살리며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의 결별 이후 상황을 전하며 편지체로 전개되어 온 사건들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다.

III. 결론

작가의 습작 시기와 초기 대표작 시기를 연결해 주는 소설인 『레이디 수잔』이 언제 집필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필자는 그 집필 시기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론에서처럼 작품 속의 편지에 작성 날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제인 오스틴이 『레이디 수잔』을 집필했을 때 특정한 년도의 달력상의 날짜를 사건들의 시간적 지표로 활용하였다고 보았고 따라서 각 편지에 특정 날짜와 요일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특정한 년도도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특정한 년도가 확인이 되어 작가가 『레이디 수잔』을 집필할 당시 어느 해의 달력을 사건 전개의 시간적 지표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작품의 집필이 그 특정 년도에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가 수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참고했을 달력은 이미 발간된 것이기에 집필 시기는 적어도 그 달력상의 년도보다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각 편지에서 언급하는 모든 시간이나 기간, 달, 요일에 주목하여 사건과 이야기의 앞뒤 관계를 조립하면서 각 편지가 작성되었을 시점을 유추해 보았다. 그러나 각 편지가 작성된 시점을 유추하여 날짜를 부여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각 편지의 시점을 정하는 일에 있어 최소한 한 편지의 시점은 분명한 날짜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명백히 할 수 없었다. 한 편지가 어느 월 어느 일에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편지에서 언급된 기간과 요

일 등을 따져 다른 전후의 편지들의 작성 날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확인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

편지 1 -6 해설에서 필자는 레이디 수잔의 처칠저택 도착 날짜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그 날짜가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 사이의 어느 날이라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12월 24일이 도착 날짜로는 가장 그럴 법한 날이긴 하지만 명백한 내적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나머지 편지들의 사건전개와 그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일단 12월 24일을 가장 개연성 높은 도착 날짜로 정하였다.

여러 편지들 중 편지 25에서 언급된 "10주간의 고행"(125)과 편지 29에서 언급된 "가까스로 10개월"(138)은 둘 다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 체류 기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 도착 날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듯이 보였지만 세밀히 날짜관계를 따져 본 결과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가까스로 10개월"의 단서에서 필자는 레이디 수잔이 런던에 도착한 시점이 적어도 2월이 아닌 3월 중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편지 2에서 우리는 레이디 수잔이 랜포드 저택을 방문하기 4개월 전에 남편을 잃었고 이후 그 곳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가 12월 중이기 때문에 그 뒤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10개월이 되는 시점은 이듬해 3월 중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10개월"이 되는 시점이 3월 중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3월 며칠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레이디 수잔이 편지 29에서 "가까스로 10개월"이라고 했을 때 10개월의 의미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였다. 두 경우 중 첫째는 레이디 수잔이 남편을 여읜 달이 5월이므로 그로부터 개월 수로만 따져 10개월째가 되는 3월을 말하는 경우였고 둘째는 개월 수와 날 수를 함께 따져 말하는 경우였다. 개월 수로만 따진 경우 편지 29의 "가까스로 10개월"은 3월 초를 말한다. 그렇다면 3월 초는 더 구체적으로 3월 며칠인가? 며칠인가의 문제는 "10주의 고행"이라는 구절로 확인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을 방문한 첫날부터 그 곳을 떠나기까지 그녀가 체류한 기간을 정확히 10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녀의 처칠 저택 도착 날짜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필자는 "10주의 고행"을 그녀가 편지 25를 쓴 시점, 다시 말해 런던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까지의 체류기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 얼마동안 체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그녀의 체류기간을 3월 초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그녀의 처칠 저택 도착 날짜를 계산해 낼 수 없게 되었다[6].

---

6) 그리고 설사 본론에서의 필자의 해설과 달리 편지 25의 "10주"가 레이디 수잔의 처칠저택

본론에서 우리는 몇 개의 편지에 특정 날짜와 요일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날짜는 이미 말했듯이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 도착한 날짜를 12월 24일이라고 가정함에 따라 붙여진 날짜이기 때문에 설사 편지가 특정 요일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날짜와 요일이 실제 달력상의 날짜와 요일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여 이 작품의 편지들에 실제 달력상의 특정 날짜와 요일을 동시에 부여하는 시도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오스틴이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 사용했을 달력의 특정 년도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7].

근본적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집필할 때 모든 편지들 각각에 특정한 날짜와 요일을 부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다만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서만 그에 적절한 시간의 길이나 변화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자주 미확정의 언어 - 예를 들어 며칠 뒤(in a few days), 일전에(the other day), 곧(soon), 거의 즉시(almost immediately), 다음 주 화요일(next Tuesday) 등 - 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와 변화는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인 날짜로 환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작품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히 시간의 길이와 변화를 확실히 잴 수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편지 각각의 날짜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된 것이다.

본론에서 보듯이 편지에서 표현되는 시간의 흐름은 작게는 시간 단위로도 언급되기도 하고 크게는 개월과 년 단위로도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 단위로 배열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말하자면 작가가 이 작품에서 주 단위를 사건전개의 기본 단위로 하였음을 뜻한다. 적어도 편지체의 이야기 부분

에서의 총 체류기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한계에 부딪힌다.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 방문 시점은 적어도 12월 17에서 12월 24일 사이라는 점 그리고 그녀가 런던에 도착한 날은 편지 29를 쓰기 하루 전이라는 점 그리고 처칠저택을 떠나 런던에 도착하는 것은 하루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날짜를 따져보자. 편지 29가 3월 초 가운데 3월 1일에 쓴 것이라면 레이디 수잔의 런던 도착일은 2월 28일이며 그녀의 처칠 저택 도착일은 지난 해 12월 22일이 된다. 그리고 편지 29가 3월 1일이 아닌 3월 2일에 쓴 것이라면 그녀의 처칠 저택 도착일은 지난 해 12월 23일이고 그 편지가 3월 3일에 쓴 것이라면 처칠 저택 도착일은 지난 해 12월 24일이 된다. 결국 이렇게 산출해 보아도 우리는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의 방문 첫날이 12월 22일 에서 24일 사이의 어느 날이라는 미확정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하지만 필자가 레이디 수잔의 도착 날짜로 가정한 12월 24일이 작가가 작품 집필에 사용한 실제 달력상의 특정 날짜라고 보고 논의를 더 진행시켜 보면 본론에서 확인이 되는 특정 요일과 특정날짜를 가지고 작가가 어느 년도의 달력을 사용하여 작품을 집필했을 수도 있는지 그 가능한 년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1792년12월과 1793년 1,2,3월의 달력이나 혹은 1798년 12월의 달력과 1799년도 1 ,2 ,3월의 달력이 가장 사용 가능성 있었던 달력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본다면 서론에서 언급된 사우쌤의 주장 - 『레이디 수잔』의 집필시기를 1793과 1794년 사이로 봄 - 이 가장 개연성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달력상의 날짜를 주로 주 단위로 묶어 사건의 앞뒤 관계를 따지고 시간의 흐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편지 2에서 레이디 수잔이 “이번 주 내에” 런던의 존슨 부인을 만나러 간다거나 편지 8에서 언급되듯이 레이디 수잔의 처칠 저택에서의 첫 주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 그 뒤 14일 동안은 드쿼시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편지 19에서 “지난 14일 전 목요일”에 프레데리카가 처칠 저택에 도착한 것, 편지 25에서 레이디 수잔이 처칠 저택에서의 생활 “10주의 고행”이라고 말하는 것, 편지 26에서 “지난 주”부터 맨웨어링 씨가 런던에 와 있다는 것, “다음 주 화요일”에 런던에 오는 것이 좋다는 존슨 부인의 말, 편지 37에서 “14일 전”에 맺었던 비밀약혼, 편지 41에서 버논 부인이 “다음 주 목요일” 파크랜즈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 편지에서 많은 사건들이 주 단위로 언급이 되고 있다.

주 단위 위주로 잘 짜여진 사건들로 인해 편지들도 그대로 주 단위로 날짜부여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 하나는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 단위의 날짜 배열이 잘 이루어지던 중 2월 말과 3월 초 사이의 한 주 기간(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빠져 있는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일까? 혹은 작가의 실수였을까? 필자는 그것이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편지 28과 편지 37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이 기간이 레이디 수잔과 드쿼시 씨가 비밀약혼을 맺은 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비밀약혼의 사건을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의도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다.

주 단위로 언급되는 사건들과 그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며 필자는 새삼 제인 오스틴의 정밀한 작업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가 이 작품의 집필에 사용했을 달력의 존재와 그 달력의 발행 년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 작품의 집필 시기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apRoberts, R. (1986). *Lady Susan*. In J. D. Grey, A. W. Litz & B. Southam (Eds.), *The Jane Austen companion* (pp. 256-26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Austen, H. (1985). Biographical notice of the author. In D. W. Harding (Ed.),

Persuasion (pp. 29-34).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Austen, J. (1984). *Lady Susan*. New York: Schocken Books.
Bush, D. (1975). *Jane Austen*.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Cecil, D. (1978). *A portrait of Jane Austen*. New York: Hill and Wang.
Chapman, R. W. (1984). *Lady Susan*. New York: Schocken Books, xv-xvi.
Gard, R. (1992). *Jane Austen's novels: The art of clari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Honan, P. (1987). *Jane Austen: Her life*. New York: St. Martin's Press.
Hughes-Hallett, P. (1991). *My dear Cassandra: The letters of Jane Austen*. New York: Clarkson Potter. i-ix.
Leavis, Q. D. (1983). C*ollected essay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Litz, A. W. (1986). Chronology of Composition. In J. D. Grey, A. W. Litz & B. Southam (Eds.), *The Jane Austen companion* (pp. 47-54).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Mudrick, M. (1952). *Jane Austen: Irony as defense and discove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inion, F. B. (1985). *A Jane Austen companion: A critical survey and reference book*. Basingstoke: Macmillan Education Ltd.
Quincey, E. (1987). Qincey on Jane Austen. In B. C. Southam (Ed.), *Jane Austen: The critical heritage Vol 2 1870-1940* (pp. 85-88).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outham, B. C. (1964). *Jane Austen's literary manuscripts: A study of the novelist's development through the surviving papers.* Oxford: Claredon Press.
Tandon, B. (2003). *Jane Austen and the morality of conversation*. London: Anthem Press.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송관용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974
Fax: (041) 850-8970
Email: song6@kongju.ac.kr

Received in Jan. 2007
Reviewed by Feb.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7